

민선 5기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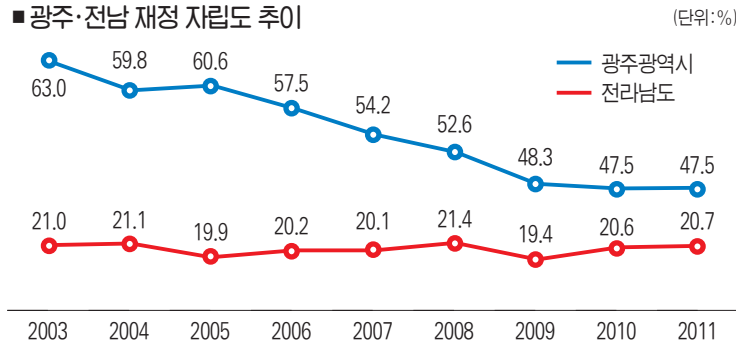
圖 2할 자치 재정난 심화

비어가는 공간... 인건비도 못줄 판

현안사업 빛내서 투자, 자립도 갈수록 하락 국세·지방세 조정, 배분 기준 변경 서둘러야

지난해 하반기 민선 5기를 시작한 광주시 각 자치구는 '텅 빈 공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열악했던 것이다. 광주시 역시 2000억원이 부족하게 예산안이 짜여있었다.

대규모 사업이 없었던 광주시는 지난 2004년 9322억원에서 지난해 말 7711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도시철도 2호선, 210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현안사업으로 인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홍·신안 등 군의 평균은 11.7%였다. 자체적으로는 사업은 물론 인건비 조차 못 줄 형편의 이들 지자체는 광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다.



茶 문화 배우세요 2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광주 국제 차 문화 전시회'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인(茶人)들이 전통 다례를 시연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며 세계 8개국 14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나라 등록금 2014년까지 30%이하 일방 발표

靑·政 “합의도 없이...” 부글부글

영수회담 악재?... 민주 “졸속정책 평가절하”

한나라당이 정부와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등록금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정청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고 있다. 오는 27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손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도 '성급한' 발표의 원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빛日만평

- 김중두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김치 규격화, 품질 인증제 도입

국회 김치산업 진흥법 의결

김치에 대한 국제 규격화가 추진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김치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단체 차원에서 김치 제조기술 보급·전수, 김치문화 계승·발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ravel (조이 여행사)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Jeju Island, Japan, China, and Europe. It includes prices, departure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travel agency.